**시119:83 Note**

**◆도우미: 호크마 주석**

성 경: [시119:83]주제1: [여호와의 율법]주제2: [주의 구원에 대한 간구]

▶ 연기 중의 가죽병 - 본 이미지의 출처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제시된다.

그 하나는 텐트 안에 걸려 있는 가죽병이다. 팔레스틴 유목민들은 텐트 생활을 하였는데 텐트안에는 음료로 마시는 포도주를 담은 가죽병이 걸려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텐트 안에서 불을 지필 경우 연기는 빠져 나가지 못하고 공중에 달려있는 가죽병을 까맣게 그을려 놓는다고 한다.

이때 여러 차례 연기에 그을려진 가죽병은 역경으로 인한 고통, 슬픔 등의 상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기 위에 달려 있는 가죽병이다. 고대의 관습 중의 하나는 포도주를 익히기 위하여 연기를 피우고 그 위에 포도주를 담은 가죽병을 달아 매단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고통을 통한 품성의 연단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이미지이다.

본절의 경우는 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맥이 연단을 위한 고통을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고통 자체, 고통의 정도에 대한 묘사에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랜 고통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영육간의 형편을 연기에 찌든 가죽병에 비유하고 있다.